

대화록 수사발표 정국 요동... 검찰-친노 정면 충돌 “盧, 회의록 고의 폐기” vs “짜맞추기 표적 수사”

輿, 문재인 책임론 제기 文 “대화록 인정한 것”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대치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실체 없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친노(친노무현) 책임론을 제기하며 파산 공세에 나선 것이다.

특히 당사자 격인 노 전 대통령 측이 “실무진 착오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해 대화록 정국이 검찰과 친노 진영 간의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문 의원 역시 이번 검찰 발표를 ‘대화록의 존재만 인정된 결과’라고 단번에 평가절하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장관급)과 조영권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삭제 매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문서자기록 등 손상 혐의의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7년 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이관 과정에 관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이병환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의 짜깁기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의 전모가 드러난 예고된 결론”이라며 “확인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비서관도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적으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참여정부 문서관리 시스템) 회의록을 삭제하라는 지시

받지 말라든가 하는 지시를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친노 측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어느 정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수의 진’을 치고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진상 규명대책단’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검찰 발표는 공경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

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권 관계자들이 관련된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록 폐기의 진실이 드러나고 노 전 대통령의 북방향계선(NLL) 포기 발언도 사실로 입증한 수사 결과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지난 7월말 문 의원이 당시

사초폐기 논란과 관련해 “귀책 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발표 후 의원총회에서 “문 의원과 친노는 역사 앞에 속죄하고 반성문을 써야 한다”면서 “특히 문 의원은 이 행위에 대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지 지난번 약속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종영 전남지사가 1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정부청사에서 마틴 오말리 주지사(왼쪽)와 상호 우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참여자치21’ 운영위원 7명 ‘안철수 지지 세력’ 몸 담아

시정 견제 순수성 논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 21’의 운영위원 상당수가 특정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참여자치 21’은 지난 2011년 총인사실 임찰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 검찰수사를 통해 업체와 공무원, 심사위원인 교수들의 부패사슬을 밝혀내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폐쇄회로(CC)TV 통관관 제센터 사업자 선정 문제, 국제 사기 논란이 일었던 캄코(GAMCO)사업 등의 굵직한 광주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해오며 시민사회에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참여자치 21’이 광주시의 캄코(GAMCO)사업과 관련, 추가 고발한 데 대해 ‘순수한 시민운동’인지,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캄코 수사가 마무리된 지 1년여 만에,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자치 21’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 31명 중 5명이 최근 ‘안철수 세력’의 실행위원으로 포함됐다. 2명은 안철수 지지세력인 ‘시민포럼’에 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경’에 대한 구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참여자치 21’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의 강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고발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안철수 신당’ 창당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뒷받침 광주에서 ‘진검 승부’를 벌여야 할 ‘안철수 세력’이 벌써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순수성이 퇴색되고 시민운동의 동력도 잃게 된다”며 “그러한 오해와 의혹을 없애려면 특정 정파에 몸을 담은 운영위원들이 자신 사퇴해야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 21’의 한 운영위원은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창립취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당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특히 안철수 의원 측의 ‘정책네트 내일’의 실행위원은 아직까지 신당이 창당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직자도 아니고, 당적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참여자치 21의 운영위원을 맡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기백 대표의 경우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으로 인선되면서 대표직을 사퇴했으며, 운영위원들도 신당이 창당돼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 사퇴를 고려해 볼 것”이라며 “캄코의 추가 고발은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돼와 정치적 배경이 나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이를 놓고 운영위원들의 정치적 색깔을 운운하는 것은 더 정치적인 음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자치 21’은 지역분권과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지난 1998년 4월 창립됐고 현재 회원은 500여명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재정자립도 4년 연속 최하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광주시 기획조정실과 복지건강국 사무 위임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정현애(민주·비례)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립도가 4년 연속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

2010년 43.15% ▲2011년 42.05% ▲2012년 41.06% ▲2013년 40.06%로 4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재정 자립도 또한, ▲2010년 65.19% ▲2011년 65.43% ▲2012년 65.18% ▲2013년 63.02%로 4년 연속 최하위다.

나종천(민주·남구3) 의원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보조금 집행 내역(1조198억원)을 점검한 결과 정산잔액이 총 190억원(국비 121억, 시비 69억)에 이른다”며 “국비 집행 잔액은 국가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잘 따져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 형편을 생각한다면 보조금 전액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사

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진선기(민주·북구 1) 의원은 이날 영락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영락공원 화장로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최신키로 증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영락공원의 화장 시간은 현재 운구와 방각 시간을 포함해 소요되는 시간이 120분”이라며 “제중시의 경우 최신키 화장로 설치로 40분 가량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美 메릴랜드주와 해양 바이오 협력

상호 교류 양해각서 체결

바이오 파크사와 기술 협력

전남도가 미국 메릴랜드주정부와 해양 바이오 등 공동 관심분야에 상호 협력기로 합의하고, 바이오 파크(Bio Park)사와 바이오산업 육성 협약을 체결했다.

박종영 전남지사를 단장으로 한 도투자유치단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마틴 오말리(Martin O'Malley) 메릴랜드 주지사와 회담을 갖고, 양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상호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메릴랜드주에 있는 바이오 파크 사를 방문해 전남의 우수한 생태환경

자원을 설명하고, 앞으로 전남의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 제임스 휴그(James Hughes) 바이오 파크 대표와 의견을 교환하고 기술교류와 협력 방안 강화 MOU를 체결했다.

바이오 파크는 메릴랜드주립대학교와 ‘바이오 인큐베이터’가 2003년부터 공동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클러스터다. 암, 계능, 백신, 혈관생물학 및 재생의 등 각 분야 1200여 명의 교수진을 갖추고 초기단계 바이오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박 지사는 “바이오 파크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전남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및 공동 개발 사업을 강화해 기술의 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정필수기자 bungy@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성사 기원 통일콘서트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남북단일팀 성사를 염원하는 통일콘서트가 열렸다.

광주시민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6일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COREA with U’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콘서트에서는 민중가수들과 대학생들의 공연에 이어 공동응원단 추진위원회 발대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615명의 대규모 합창단이 ‘내 나라 내

겨레’, ‘상록수’ 등을 불렀다.

통일콘서트 행사위원회측은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600여일 정도가 남았다”면서 “남북단일팀 추진은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이고, 객체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고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E타워 2층 상가 960㎡ 매 20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적합)
-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 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지하상가 1,800㎡(점포 7칸) 매 10억(보 1억1천, 월610만, 용5억9천 포함)
-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 월800만 대출 9억 5천), 직영 월천만수입
-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 건평500㎡ 17억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 해보면 2차선도로변 담 1,245㎡ 매9천5백만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금매,조점가)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총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함평군 영일 칠동은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8천
- 대인동 소방도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금방로 5가에 있을 9억
- 공장부지 나주시 남평읍 비행정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선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조선대학교 앞 대로면 통영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 736㎡(228) 상가와 주택 있고 원룸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 2천에 월 500선 수익 매도 9억6천
- 나대지 목포시 용당동 MBC방송국 인근 대로면 상업지역 410㎡(124) 상가와 원룸 적합 대출 3억 2천 매도 2천
- 남평읍 예서 차로 10분거리 마을 대지 162평 전원생활적합 대출 2천만원 매도 3백만원
- 금남로 3가 부근 식당 대지 62평 건평 128평 5억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소리룸 92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 5천에 월200선 임대, 분위기있는 식당도 적합
- 임대·매매,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2월 초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 개를 매입하면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취미·유선·건설·투자·매수·신채대리업체(법인인가) 근린시설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 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12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1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1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병동,자운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추가환경최상 대지1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